

국내 첫 200만장 돌파 앨범은 '하여가'

한터차트 1993년 이래 연간 음반 판매량 '톱10' 공개 내년 2월 잠실실내체육관서 오프라인 시상식 첫 개최

국내 음반 차트인 한터차트를 운영 하는 한터글로벌이 1993년 이래 대한민국 연간 음반 판매량 '톱 10' 을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93년 연간 음반 판매량 1위는 당시 크게 히트했던 서태지와아이들의 2집 '하여가'로 213만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터글로벌은 이 앨범이 "대한민국 공식 첫 200만장 판매량 돌파 앨범"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신승훈 3집 '널 사랑하니까'는 173만장, 김중서 2집 'PETS DN2'는 134만장으로 각각 나타났다.

1995년에는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별'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건모 3집이 286만장이라는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한터글로벌은 1990년대는 단일 앨범을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는 가수를 기준으로 연간 '톱 10'을 공개했다.

댄스 음악 대신 아르앤디(R&B)가 인기를 끈 2000년대 중반에는 2005~2007년 3년 내리 SG워너비가 연간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09~2010년 소녀시대, 2011~2012년 슈퍼주니어, 2013~2015~2016년 엑소가 각각 정상에 올라 아이돌 그룹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특히 2017년부터는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BTS)이 1위를 차지해 월드스타의 위상을 뽐냈다. 방탄소



서태지와 아이들.

연합뉴스

년단은 2020년 한해 무려 723만장에 달하는 음반 판매고를 기록해 2위 세븐틴 219만장의 3.3배에 달했다.

한터글로벌은 차트 30주년을 맞아 내년 2월 10~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첫 오프라인 시상식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2'도 연다.

시상식 주요 부문과 투표 관련 안내는 추후 이뤄진다.

한터글로벌은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 차트로 K팝 음악 산업의 역사와 함께 온 한터차트의 데이터를 통해 K팝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샤이니 민호, 데뷔 후 첫 솔로 음반 공개

"평소에 도전하고 싶었던 힙합과 아르앤디(R&B) 장르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음악들로 앨범을 채웠어요. 한 마디로 민호의 감성 모음집이죠."

그림 샤이니의 민호(사진)는 6일 오후 미니음반 '체이스'(CHASE)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제 이야기를 앨범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신나고 즐거웠다"고 돌아봤다.

'체이스'는 민호가 2008년 샤이니로 데뷔한 이후 14년 만에 내는 첫 솔로 음반이다. 그는 샤이니 멤버로서는 마지막 솔로 데뷔이기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심경이었다고 했다.

"앞서 나온 네 멤버의 솔로 음반이 제 책장에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제 음반을 빈자리에 넣어서 퍼즐을 완성하면 정말 뿌듯할 거 같아요." 신보에는 타이틀곡 '놓아줘'(Runaway), '프루브 잇'(Prove It), '워터폴'(Waterfall), '초이스'(Choice), '하트브레이크'(Heartbreak) 등 6곡이 수록됐다.

'놓아줘'는 묵직한 베이스 사운드와 반복적인 피아노 멜로디가 어우러진 팝 장르 곡으로, 심어송라이터 제미니아가 노래에 참여했다. 민호는 "꿈속에서 만난 한 사람을 쫓아가지만 결국 닿지 못하고



깨어났을 때 느끼는 공허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프루브 잇'은 비록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것의 존재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민호는 이 곡을 통해 비단 '사랑'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의 민호'를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일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내 결과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며 "가사가 잘 나와서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민호는 '러너웨이'의 작사에 참여하면서 어느덧 가요계에서 14년을 보낸 가수로서의 역량을 뽐내기도 했다.

민호는 샤이니로 데뷔한 이래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아.미.고' 등을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무섭고 징그럽지만 궁금한 뒷이야기...

미이케 다카시 감독 신작 디즈니+ 드라마 '커넥트' 연쇄살인범 연결된 '신인류의 눈' 소재 SF 스릴러물

느닷없이 장기매매조직에 납치된 남자는 몸이 절단되고, 안구가 적출된다. 장기가 흰히 보이만큼 벌려진 몸속에서 시뻘건 수심 개의 촉수가 뻗어 나오더니 빠른 속도로 엉겨 붙는다. 촉수가 연결되면서 남자의 몸은 상처 하나 없던 원래의 매끈한 상태로 회복된다.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몸을 가진 신인류 커넥트. 디즈니+ 새 드라마 '커넥트'는 동명의 웹툰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완성해냈다. 절단된 신체를 가까이 들여다보듯 클로즈업한 장면은 징그러워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만든다.

일본 장르영화의 거장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신작이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공포영화 '착신아리'(2003)를 비롯해 '퍼스트 러브'(2020), '악의 교전'(2012), '13인

의 자객'(2010) 등 범죄·호러·스릴러 장르에 특화된 연출력을 보여온 미이케 감독은 이번에도 순식간에 강렬한 장면들로 관객들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다.

미이케 감독이 정해인, 고경표 등 한국 배우들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커넥트'는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몸을 가진 신인류 커넥트와 안구 이식으로 커넥트의 눈을 갖게 된 연쇄살인마에 관한 이야기다. 정해인이 한쪽 눈을 잃은 커넥트 동수를, 고경표가 연쇄살인마 진실을 연기했다.

총 6부작 가운데 언론에 먼저 공개된 1~3부작은 공포영화 같은 SF 스릴러라는 느낌을 준다. 드라마 초반에는 잔혹한 장면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거나, 갑자기 전화벨 소리를 울리는 등 공포감을 형성하



디즈니+ 새 드라마 '커넥트'

연합뉴스

는 데 공을 들인다.

동수의 서사가 징그럽고 무서운 분위기에서 흘러간다면 진섭의 서사는 차분하고 서늘한 분위기에서 기괴한 공포를 만들어낸다.

진섭은 가시가 돋친 장미 덩굴에 엉킨 여인의 동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다. 아름다운 조형물로 보이던 동상에 사람들이 몰려든 순간, 갑자기 동상의 손끝, 눈 등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 동상은 바로 진섭이 살해한 사람의 시신으로 만든 '사체아트'다.

상반된 분위기로 극을 이끌어가는 정해인과 고경표의 연기는 훌륭

하다. 작품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들이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스스로 갖고 있던 틀마저 깬 느낌이다.

두 사람의 서사는 서로의 시각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서부터 겹쳐진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점 얽혀들어 가는 동수와 진섭의 관계나 동수를 도와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 최이랑(김혜준 분),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쫓는 최형사(김희하)의 역할이 커질수록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다만 신인류, 시각 동기화 등 공상과학 같은 설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직접적이다 보니 조마조마하게 상황을 파악해가던 맥을 끊어놓기도 한다. 동수가 자신의 눈을 이식받은 이가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을 알아챈 뒤 살인을 막겠다고 막무가내로 진섭을 추적하는 전개도 조금은 갑작스럽다. 자신의 눈을 되찾는 것보다 '히어로' 역할을 하는 데 더 강렬한 감정을 내보일 때는 그에 맞는 동기가 있어야 할듯 싶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美 타임 선정 '올해의 엔터테이너'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타임 선정 '올해의 엔터테이너'(Entertainer of the Year)에 올랐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이 부문에서 걸그룹이 선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타임은 "블랙핑크는 트렌드를 이끄는 현시대의 아이콘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밴드"라며 "올 한해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K팝 그룹임은 물론, 두 번째 정규 음반으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타임은 이들이 올해 8월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

무대를 꾸렸고, 이어 초대형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또 전 세계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자랑한다고도 전했다.

블랙핑크는 "우리는 음악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며 "매 순간 행복하게 즐기면서 임하고 있는 성과도 함께 따라왔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는 2019년 타임 선정 '넥스트 100인'에 올랐고, 2020년에는 '올해의 인물' 후보로 뽑히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투어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재) 11:55 스포츠 스페셜	6:10 동네 한 바퀴(재) 7:05 카타르 월드컵 스페셜 걸어서 세계속으로 7:35 굿모닝 카리브 8:00 해 별만한 아침 M&W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공작지(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프리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카타르월드컵 2022 하이라이트 모닝글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 스페셜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시간탐험대 디노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편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예나그날이 11:30 슈퍼디디 11:45 해와 숲속친구들	8:00 당동당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9:40 유치원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글로벌 이빨 찾아 심안리 15:35 꾸러기 전사들 16:25 슈퍼두더굴 잉글리시 17:30 히어로 싸움 18:00 생방송 워터쇼 해결단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아미도 아미도 존재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팔도방송 스페셜 14:30 어린이 동물터비 15: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국제 예매상 수상 기념 <연모>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우리동일 세계공행(재) 15:30 TV 유치원 16:00 신상출시 런스투랑(재) 17:00 마린엔로니 2 17: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17:30 풀집 영화가 좋다 17:50 통말뉴스를 ET	12:00 12 MBC 뉴스 12:25 일담백집사(재) 13:40 헬로키키트 공화국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쿠에이그 사람이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3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4:00 네오세모(재) 15:00 혼재출세! 스페셜 15:30 휴먼다큐 병영의 달 16:00 와이드 정보소 알고 보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외! 젊음	KCTV 8:00 특목TV더터 8:30 용천수마을 다이어리 9:30 여왕의 레시미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00 특목TV더터 15:20 제주국제관광제 16:10 KCTV 다뉴스스페셜 17:40 KCTV VOD 홀로그램드 18:00 특목TV더터 18:30 용천수마을 다이어리 19:00 KCTV 뉴스7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내 눈에 공작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5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열아홉 해달들> 23:10 커튼콜(재)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일타강사 21:50 일담백집사 23:10 리디오스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편먹고 공치리4 진점승부 특별판	제주CBS FM 90.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낭중합뉴스 14:05 송미의 속속속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생 18:00 CBS 저녁중합뉴스 18:25 한관승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보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7일

김종상 지단(호미)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여행을 자제하고 흥을 보지 마라. 48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60년 짜든 과욕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자세가 필요한 날. 72년 업무나 하는 일에 하자 발생해 효율성을 저해하니 성체함이 필요. 84년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에 후회가 없는 날이니 자중하라.

37년 건강회복 약물의 효과가 있으니 길하다. 49년 업무나 일에 중단이 있으니 차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철저히 세워라. 6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 변동이 나 이동은 불리하다. 73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 지니 동료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5년 만남이나 모임이 있어 즐거운 날이다.

38년 몸이 피곤해지고 허약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안전사고에 의한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 만사주의. 62년 배달이나 기계고장 등으로 일이 지연. 74년 업무량이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6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

39년 분실이나 물건을 두고 오니 잘 챙겨야한다. 51년 과도한 재욕이 화를 부르는 정도를 지켜라. 63년 뜻하지 않는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된다. 예외와 절대는 존경을 얻는다. 75년 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성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7년 정보수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0년 일에 성과가 있으며 고민하던 일이 해결. 52년 친지나 벗을 만나고 전문가를 접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64년 나태함과 게으름이 후회를 낳으며 부부간 다툼이 된다. 76년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88년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직업 또는 급진 문제가 더 앞선다.

41년 변동 시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53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65년 자녀문제가 가정불화가 확산된다. 77년 변동이나 변화가 필요하며 급진 지출이 발생한다. 89년 이별에 아쉬움이 상처가 되었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2년 식당이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 54년 문서용, 계약문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만. 66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다름,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니 신속한 타협점을 생각하라. 78년 작은 실수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여행에 주의하라. 90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있으니 미루지 말 것.

43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55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들 것. 하극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67년 모임이 있으면 치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79년 취업에 변화를 피하려 하거나 인기영웅으로 변화를 추구 한다. 91년 반가운 마음과 술이 나를 찾는다. 과음절제.

44년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을 얻으나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역부족. 56년 금전적 손실이 따르거나 형제, 동료간 논쟁을 조심해야. 68년 관제구설수가 두려우니 미련에 예방하라. 부부애정 적신호. 80년 시원스런 소식을 접하고 만나는 이가 귀인이다. 92년 형제의 기쁜 소식을 듣거나 용돈이 생긴다.

45년 나눔을 주게 되거나 봉사할 일이 기다린다. 57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관련 좋은 소식이나 일이 있다. 69년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니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때. 81년 새로운 교제가 진행된다. 나와 관련하여 대화가 통한다. 93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 이든 하고 싶다.

46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욕심을 내지 말 것. 58년 자만심이 화를 부르고 후회를 만드는 격이니 나보다 상대를 중히 여김이 필요. 70년 업무과중이나 헛사람의 충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 94년 우정에 불화의 골이 깊어지니 신속하고 진심어린 배려가 필요.

47년 하던 일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추진하라. 무리수는 후회를 부른다. 59년 상가나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본인의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71년 성과가 있고 이익이 현실로 나타난다. 83년 취업이나 직업변동이 오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한다. 95년 부모님 건강이 불리하니 옆에 있어주는 것도 위안이 된다.